현명하고 건전한 소비

여동찬 / 한국외국어대 교수

「금년은 신미년 즉 원숭이의 해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원숭이란 동물은 흉내를 잘 내는 동물이지만 새해에 들어서 우리는 원래 과소비하는 서양사람들을 흉내내지 않도록 하십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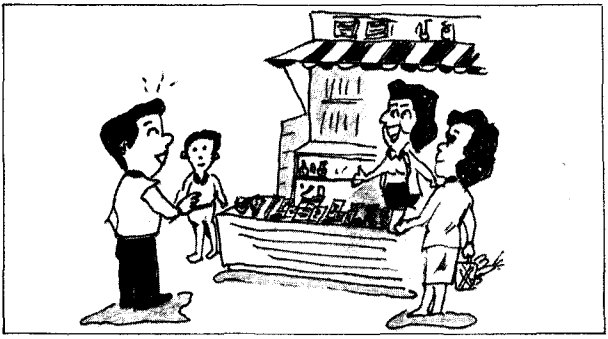
연초에 진행하는 오락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최모란 젊은 탤런트가 한 말이다. 그 말을 한 젊은 친구와 TV화면을 지켜보던 수많은 사람들은 서양사람들을 사치와 과소비의 명수, 최근들어 한국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과소비풍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로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옛날부터 한국사람에게는 핑계없는 무덤이 없으며 좋지 못한 일이란 모두 조상의 탓이 아니면 외국인의 탓이다. 일제시대가 끝난지 47년이 된 오늘에도 한국사회의 거의 모든 폐단과 비리는 아직 식민정책의 잔재처럼 설명되곤 한다. 필자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지식으로는 무조건 우리 공무원들의 비리, 부패 등을 식민정책의 소산으로 내세우기보다 일본이 한국을 합방하기 전, 조선조의 말기부터 나타났던 부정과 부패도 생각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식민통치의 영향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일제시대 훨씬 이전부터 한국의 관리들이 부정과 부패에 관해 무시못할 소질을 보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독직이란 본래 일본관리들로부터 배운 일제의 잔재라면 한국공무원들의 부정보다 일본공무원들의 부정이 심해야 할터인데 통계에 따르면 우리는 그방면으로 훨씬 「강세」이다. 그리고 일제를 틈타서 그런 폐단들이 심해졌다 손치더라도 해방후 반세기가 되도록 한민족이 이를 바로잡지 못한 것도 과연 일본의 탓으로만 돌릴 수 있겠는가?

우리 젊은이들의 노동기피현상, 교통의 무질서, 택시승차거부 등등을 일본사람으로부터 배운 버릇으로 해명하겠는가?

현대한국사회의 수많은 폐단을 서양문화의 악영향으로 전가시키는 경향도 그렇다. 서양문명이 무분별하게 도입되었다면 그 무분별한 도입에 대해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어느 문화와 마찬가지로 서양문화, 문명에도 훌륭한 요소도 있고 바람직하지 못한 면도 있긴 하지만 취사선택해서 바람직한 요소보다 사치스럽고 퇴폐적인 요소들을 도입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한국사람은 의지도 없고 판단력이 없는 인간이 아닌 이상 이를 타인의 뜻대로만 되어버린 것



"부유한 사람의 소비능력을 가지지 못하면서도 그 소비수준을 따르려고 흉내내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듯하다."

처럼 호도할 수 없는 일이다.

과소비의 문제도 그렇다.

과소비풍조를 서양사람들의 탓으로 돌리는 젊은 탤런트의 주장과 달리 서양사람들은 별로 과소비를 하는 것 같지 않고 신분과시나 체면을 위해 소비를 하지 않는 것 같다. 일인당소득으로 보면 한국인보다 세배나 더 많은 수입을 가진 그들은 한국인보다 많이 소비한다고 해서 반드시 「과소비」가 될 것도 없는 일이다. 부유한 사람의 소비능력을 가지지 못하면서도 그 소비수준을 따르려고 흉내내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듯하다.

나는 오히려 최근들어 윤택하게 살면서도 절약하고 소비를 해도 적절하게 소비하기 시작한 서양사람들의 경향을 소개하고 한국친구들에게 이를 본받기를 권하고 싶은 심정이다. 흉내낸다는 것은 아무 생각도 판단도 없이 그 행동의 결과가 어떨지 헤아리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라면 본받는다는 것은 앞뒤를 생각하여 목표를 두고 하는 행위인 것이다.

얼마전부터 서양의 많은 출판물들은 몇년전만 해도 상상할 수도 없었던 주제를 다루기 시작했다. 「소비사회의 종말」과 같은 제목이라면 한국독자들에게 생소하게 느껴지겠지만 서양사람들에게는 이미 친숙해진 표현이 된 것이다.

최근호에서 「렉스프레스」란 불란서잡지에서는 「불란서인들의 머리 속에 무엇이 달라졌다. 과거보다 덜 변덕스러운 그들은 돈을 달리 쓰기도 한다. 그들이 요구하는 제품은 간편하고 실용적인 제품이다. 이런 혁명적 운동에 나선 사람들은 여성들이다」라고 했다.

기사의 내용에 의하면 서양의 소비자들은 더이상 판매전략이나 유행의 유혹에 속아넘어가지 않는다.

1960년대 쯤에는 신형 TV수상기가 나오기가 무섭게 소비자들은 앞을 다투어 사려고 하면서 먼저 구입한 사람을 부러움과 질투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다. 당시의 소비사회이론가들은 대만족을 느끼곤 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인간은 광고의 공세를 이겨낼 길이 없어 선망의 대상과 사회적 지위의 상징처럼 느껴졌던 제품을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보였던 것이다.

그런 제품을 사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고통을 면할 길이 없었고 현대문명이 만들어내는 보배들의 소유란 사회의 상류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있는대로 쓰기보다 내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건전한 소비생활을 지향해야 할 것 같다."

층으로의 진입을 의미하며 사회적 격상의 상징이었음으로 이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일종의 소외감마저 느꼈던 것이다.

그런데 사반세기 전에 고급가구만을 선호했던 바로 그사람들의 자녀들은 간편한 가구들을 찾고 있을 뿐 만 아니라 그들은 또한 월부판매, 신용카드사용 등은 위험하고 소비를 지나치게 부추기는 것으로 경계하고 있다.

오늘의 세대가 필요한 물건을 사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전 세대에 비하여 우선 구매 자체에 열이 식은 듯하다. 그들은 제품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산다고 해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서양의 사회학자들은 「탈소비」현상이란 표현을 쓰기 시작했다.

소비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계속 늘고 있지만 소비의 증가는 조금씩 둔화하는 추세라고 한다. 그리고 과거보다 건전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사회학자들은 또한 우리 모두가 귀를 기울일 만한 분석을 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소비자는 과거에 사기를 당한 기분이고 더이상 광고회사나 제조업체들의 권유와 유혹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기계가 되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서양에서 임금인상의 폭이 줄어들고 거의 모든 나라에서 실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만큼 넉넉한 생활을 하는 계층마저 돈을 쓰는데 자제할 필요를 느끼는 것 같다.

미국에서 실시한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한사람이 백화점에서 매월 소비하는 시간은 1980년에 12시간에서 1991년에 4시간 즉 1/3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미국의 한 주간지는 「오늘의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물건 외에 아무것도 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들도 계속 광고회사로부터 바보취급을 받고 꼭두각시처럼 광고회사들의 장단에 맞추어서 춤을 출 것인지 아니면 그들도 서양사람들처럼 각성하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그들도 있는대로 쓰기보다 내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건전한 소비생활을 지향해야 할 것 같다.

나는 원숭이의 해를 맞아 한국국민이 서양사람들을 흉내내기를 바라는 것보다 현명하게 처신하는 그들을 본받아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고 보다 나은 내일을 마련해주기 바라는 것이다. ✝